



<21> '핑크 클라우드'

분홍 살인 구름... 계엄·팬데믹 배경 재난상황 속 고립된 인간심리 주목 뒤편 영화제·시체스 영화제 등 수상 브라질 SF...웨이브 등 OTT 상영중

'핑크빛 세상'이란 말이 무렵하게, 도처에 떠다니는 분홍 구름이 불길하다. 모월 모일 '원나잇'을 즐기다 모처에 갇혀버린 연인의 창가에 드리운 층운... 접촉하면 곧장 사망하는 살상 구름으로 인해 두 사람은 닭장 속 인간을 자처한다.
응당 검은 그림자와 레퀴엠으로 점철될 법한 내러티브지만 어딜봐도 버블검 색깔이라 기묘하다. 되레 선홍빛에 가까운 미장센은 불결한 죽음 이미지로 전도됐고 구름(희망), 핑크(사랑) 등 관습적 상징마저 뒤틀리고 꼬인다.
영화 속 격리된 세상은 앞선 팬데믹을, 정부가 선포한 계엄령은 작금의 현실을 겹쳐보게 한다. "실제 사건과 닮은 건 순전히 우연"이라는 문장으로 시작



원나잇을 즐기던 지오바나(왼쪽)와 야구는 갑작스레 나타난 분홍색 살인 구름으로 인해 집에 격리된다. 구름을 피해 동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컨셉샷.

하는 이율리 제르바지 작 '핑크 클라우드'는 그런 작품이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서 상영 중인 작품은 국내에서 생소한 브라질 SF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개봉 당시 제54회 '뮌헨 국제영화제' 미래상, 54회 '시체스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석권하면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고립 세계를 그린 유사한 작품으로 '컨테이션'부터 '아웃브레이크', '눈먼자들의 도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로 가득 찬 이들과 '핑크 클라우드'는 화사한 포스터나 아웃리프(무정부주의)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정부의 존재가 견제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누양스가 다르다.
영화는 사랑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끝났으나 유명 공동체가 돼버린 연인의 불협화음을 그린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격리가 지속되자 세상은 별천지가 된다. '분홍 구름'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격리 시대에 영혼의 짝을 찾는 방송 프로그램도 등장한다. '구름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글귀를 장문에 락카칠한 뒤 무신하는 이들의 존재는 비극 그 자체다.
정부는 드론과 튜브를 통해 집마다 생필품을 보급하면서 혼란을 막는다. 통상 재난 영화가 아니니(무정부주의)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정부의 존재가 견제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핑크빛 세상에 갇히다



'살인 구름'으로 인해 살아남은 자들은 외부로 이어지는 '튜브'를 통해 보급품을 분배 받는다.

그런 세상에서 연인들은 아이를 낳고 원격으로 화상 진료를 받는 등 그럭저럭 '잘' 산다. 일하지 않아도 식량이 배급되기에 흑자에겐 이 비극적 세상이 유토피아일지 모른다.
이처럼 극단 상황에 SF 상상력을 가미한 영화지만, 렌즈는 사랑의 분열과 합일에 포커스를 맞춘다.
지오바나와 달리 야구는 연인의 등에 있는 점의 개수도, 아이를 왜 낳기 싫은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디테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질러버린 남자는 늦은 밤 화상채팅을 통해 다른 이를 탐한다. 지오바나도 옆 건물 남자와 원격으로 밀회를 즐긴다.
방에 갇힌 이들의 심리 변화도 볼거리다. 분홍색

구름은 물리적으로 인간들을 가둔 것을 넘어, 타자와 소통하는 욕망 자체를 한정하고 유폐시켰다.
지오바나와 야구는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페르소나를 대입, 답답한 마음을 환기한다. 킬러, 성인용품 사장, 변호사 등으로 변신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말미에서 분홍 구름은 녹색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종말이 도래했다거나, 곧 밖을 나갈 수 있으리란 징조로 해석하지만, 분홍빛이 재차 드리우면서 절망은 배가된다. 좌절한 지오바나는 옥상에 올라 무방비로 구름에 노출된 채 열까지 쬐다. 그러나 영커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모습을 증명하며 영화는 그대로 끝.
전형적인 열린 결말이지만 해피엔드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들이 많다. 구름에 노출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점이나 균정색 하늘로 변했다는 점 외에도.
고통에 침잠해서, 함께하는 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벗어남의 전부는 생각이 남는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미로에 갇힌 자가 그저 벽에 손을 댄 채 따라가지만 한편 탈출한다는 '오른손 법칙'이 뇌리를 스치는 이유다. 미로를 벗어나려 강경대기보다 내백을 모두 돌아보고, 곁에 있는 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청사진이다.
야구와 지오바나 모두 일정 기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방황했다. 그것이 미로의 본령이라면, 결말부의 분홍 구름은 희망을 띄워둔 부표 아닐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홉살에 '홍보가' 완창 국악인 최혜원, '수궁가'로 개인 발표회



제7회 광주여협합창단 정기연주회 'The 감사'에서 가야금 병창하는 최혜원 씨. <최혜원 제공>

22일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
지역 출신 소리꾼 최혜원 씨는 아홉살에 연행 시간 3시간 30분에 달하는 판소리 '홍보가'를 완창해 주목을 받았다. 광주에고를 졸업한 뒤 올해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에 입학한 그는 경기남도민요국악원에서 남도·경기민요를 사사한 뒤,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명자에게 판소리·가야금병창을 전수받았다.
국악인 최혜원이 7번째 개인발표회 '수궁가'를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상상마루에서 펼친다. 사회는 국악인 김서운이 맡으며 복채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인 박시양 고수가 잡는다.
최 씨는 "이번에 '수궁가'를 연행하면 판소리 다

섯마당 중 '적벽가' 한 마당만이 남게 된다"며 "향후 대학에 재학하면서도 적벽가를 섭렵해, 판소리 다섯마당을 완창하는 예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스승 문명자로부터 미산 박초월체 판소리 '수궁가' 등을 전수받으며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곡들은 박귀희 명창의 레퍼토리에 문명자 스타일을 가미한 것들이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우리 소리에 실린 예술혼과 현대적인 감성을 모두 전하고 싶다'는 복안이다.
최 씨는 "국악에 대해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부모님, 스승님들 덕에 일곱 번째 개인발표회를 펼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발표회에 오셔서 가야금병창의 매력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신나는 그림책 모험' 체험 장면. <ACC재단 제공>

그림책 이야기 체험 "정말 재밌어요"

ACC재단, 3월3일까지 진행

아시아 문화와 이야기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한 그림책 전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의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이 어린이들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3월 3일까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개막 50여 일 만에 1만 여명이 관람했다. 재단이 발간한 그림책 5권에 담긴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구리와 노래 부르고 춤도 출 수 있으며 '유르트' 안에서 늑대를 물리치며 세 친구를 구하는 모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호수 속 여왕의 장신구를 찾거나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와 부모가 그림책을 읽거나 체험을 통해 중심을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시장 곳곳에는 그림책이 비치돼 있어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몸과 상상력으로 즐길 수 있다.
권성아 팀장은 "이번 전시는 방향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겨 찾는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그림책 전시도 보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해 아시아 이야기 속 세상을 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한편 이번 전시는 ACC재단과 3D 융합콘텐츠 전문기업 ㈜인디고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체험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획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문화 격차 완화 바우처카드 14만원 지원...11월 28일까지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바우처카드다. 국내여행은 물론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1만 원 증액한 1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문화누리카드 주관처인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

급'이 오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온라인으로 발급.
재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축제에서 식·음료 구매가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을 운영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문화체험, 홍보이벤트 '서로서로 문화나눔' 등을 추진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산간이나 도서지역 거주자를 위해서는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집 '집 앞까지 문화택배(4단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전남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총 2127개 등록되어 있다. 올해부터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낚시용품, 바둑 기원 분야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신규 등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고령층이 집중돼 있는 전남에서 문화누리카드가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넓히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 산간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S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and KGB (Korea Guarantee Bank). It features the KSA logo, the text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Trust and Satisfaction for Custom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Seoul (02) 227-9940, Seoul (02) 227-9970, Seoul (02) 765-9940, and Suwon (061) 752-9940. It also mentions ISO 21388 certification and a 100% satisfaction guarantee.